

I. 서론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고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하고자 하는 문화로 인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가운데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로 조사됐다. 특히 소주, 위스키 등 20도 이상의 고도주의 소비량은 한국을 제외한 29개 OECD 회원국 평균 소비량의 5.6배에 이른다[1]. 20세 이상 성인의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계속 음주한 사람의 비율인 전체 음주율은 2008년도 54.1%에서 2014년 60.8%로 증가하였다[2].

한편,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14년에는 45.3%에 달하였다. 이는 1990년도 75.3%, 2000년도 67.6%에 비하면 많이 감소한 것이지만[3], 여전히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흡연자임을 알 수 있다. 2005년 우리나라 흡연자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8조9,205억원에 달하였는데, 이 중 93.8%에 해당하는 8조3,633억원이 조기사망에 의한 손실이었다[4].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 및 흡연행위가 경찰공무원 사이에서는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및 흡연의 정도에 따른 결근 및 징계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독립변수인 음주는 음주경험, 음주빈도, 음주량 그리고 흡연은 흡연유무, 흡연량으로 종속변수인 결근은 결근의사, 결근실행, 거짓결근 그리고 징계는 징계경험, 징계종류로 구성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우리사회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술이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짧은 시간에 폭음을 하며, 폭탄주나 원샷 등 무리한 음주를 강요하는 잘못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중 주정에 대해서도 술버릇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 음주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관용성을 보이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편승하여 한국 성인의 대부분은 음주자이고, 폭음률은 미국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3배 이상 되는 수준이며, 한국 성인의 32.2%, 즉 10명 중 3명은 문제성 음주자로 지난 1년간 음주와 관련된 개인적·심리적·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런 문제성 음주의 경우 간질환, 위장 및 체장질환, 신경계 질환, 관상동맥질환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와 같은 정신적 피해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문제성 음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 외에도 자살, 타살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각종 교통사고가 음주로 인해서 유발되며 경제적 손실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규모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대비 약 0.5-2.7%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기준 한해 손실규모가 약 13조6,230억원, GDP 대비 3.6%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음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노인철 외, 1997). 또한, 정우진 외(2006)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직접비, 간접비,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규모가 무려 약 15조 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2.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8].

이처럼 문제음주는 술을 마시는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 사회 전반에 걸쳐 피해를 주고 있고 그 피해의 크기도 상당하며 증가추세에 있어서 우리나라 보건문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9].

특히 직장 문제음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생산성 저하 가능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김성대 외, 2003).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61.5% 이상이 음주로 인해 조퇴, 근무태만, 직장 동료들과 다툼, 결근 등 직장생활에서의 문제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음주행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술을 마신다는 것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Cooper, 1992). 이러한 입장은 Conger(1956)와 같은 연구자에 의해서 알코올 소비의 긴장감소 가설로 제안되었다. 긴장감소 이론에 따르면 술은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난 후에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감소 이론의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지지는 혼재되어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Cappell & Greeley, 1987; Sher, 1987)은 보다 정교한 모델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11].

한편, 흡연으로 인한 연간 질병 비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2006년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조 9,676억원 수준이다. 이 중 남성이 2조 6,058억원, 여성이 3,618억원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은 남성들의 폐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별 비용은 기관·폐·기관지암이 5,183억원(17.5%)이고 위암 3,580억원(12.1%), 허혈성 심장질환 2,661억원(9%), 뇌혈관질환 2,371억원(8%), 간암 2,159억원(7.3%), 기관지염·폐기종 1,817억원(6.1%), 고혈압 1,657억원(5.6%) 순이었다. 50대 흡연자에게서는 암, 40대 흡연자에게는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이 '2007 금연정책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흡연자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8조 9천 2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0대 한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약 17억원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흡연에 의한 30대 조기사망의 손실비용은 2조 3천억원, 40대는 4천 8백억원, 50대는 2조 880억원, 60대 이상은 5천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13].

미시간 주립대학 연구팀이 1989년 21-30세 학생 900명을 인터뷰한 뒤 1992년, 1994년, 1999년 세 차례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중 19명이 자살기도를 했고, 130명은 자살에 관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당시 현재에도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응답자는

자살에 관한 생각이나 자살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학술지인 'Tobacco Control' 2007년 4월호에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결근율이 높고, 업무성과도 낮다는 두 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Amsterdam에 있는 Free University의 Peter Lundberg 박사는 1988-1991년 사이에 14,000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흡연과 질병에 의한 결근율을 조사한 결과, 흡연자가 질병으로 인한 결근율이 11일 더 많다고 밝혔다. 다만 직업의 위험도와 원래 건강상태 등을 조정한 결과 결근일자가 8일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San Diego University의 Terry Conway 박사는 1996-1997년에 미해군에 입대한 5,5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흡연자는 비흡연여성보다 근무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흡연여성은 비흡연여성에 비해 질병, 비행, 실수로 인한 사건, 약물의 오남용, 성격적인 결함 등으로 강제전역 할 가능성이 높고, 흡연여성이 만기 전에 제대하거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한다는 사실로 더 위험한 근무를 시키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15].

음주와 더불어 흡연은 스트레스 해소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부족과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지나친 흡연을 초래하고 있다[16].

흡연이 스트레스 기간 중 감정이나, 기분의 변화와 고통을 의미 있게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고,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흡연자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적은 흡연자가 스트레스가 적거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흡연자보다 금연하거나 일단 금연을 하였더라도 금연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보고도 있다. 이외에 스트레스의 정도가 흡연의 소모량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 금연과 직업상의 스트레스 사이에 역상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흡연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스와 연관을 가지고 있고, 흡연의 전과정에 걸쳐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17].

III. 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에서 무작위 추출하였다. 표집된 조사대상자는 전국 23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공무원이었다.

자료의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연구자 및 사전에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자가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향후에 다시 방문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2006년 10-11월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1,045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929부를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자들에 의해 코딩을 한 후, 분석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음주 및 흡연 행위 그리고 종속변수인 결근 및 징계 정도를 빈도분석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의 가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및 흡연 행위 수준에 따른 부정적 행동의 정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정적 행동은 구체적으로 결근과 징계 두 가지 지표로 검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에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체적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활용하였다.

연구가설 I : 음주행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결근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II : 음주행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징계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III : 흡연행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결근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IV : 흡연행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징계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연구의 결과

1. 독립 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음주 및 흡연행위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음주경험, 음주빈도, 음주량 그리고 흡연은 흡연유무, 흡연량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음주 경험

음주경험	빈도(명)	백분율(%)
없다	138	14.9
있다	791	85.1
합계	929	100

조사대상자 중 최근 1개월 동안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91명(85.1%)이었고, 음주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38명(14.9%)이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다수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음주 빈도

음주빈도	빈도(명)	백분율(%)
0	121	13.0
월1-2회	199	21.4
월3-4회	326	35.1
주2-3회	221	23.8
주4-5회	42	4.5
거의 매일	20	2.2
합계	929	100

조사대상자 중 음주자의 음주빈도를 살펴보면, 월 3-4회 즉, 1주일에 1회 정도 마신다는 응답자가 326명(3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 2-3회 221명(23.8%), 월 1-2회 199명(2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음주량

음주빈도	빈도(명)	백분율(%)
0	122	13.1
1잔-반병	148	15.9
반병-1병	276	29.7
1병-2병	320	34.4
2병 초과	63	6.8
합계	929	100

응답자의 1회 음주량은 소주 기준 1병 초과 2병까지가 320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병 초과 1병까

지가 276명(29.7%), 1잔부터 반병까지가 148명(15.9%) 순이었고, 2병을 초과하는 응답자도 63명(6.8%)으로 나타났다.

표 4. 흡연 유무

흡연유무	빈도(명)	백분율(%)
비흡연	557	60.0
흡연	372	40.0
합계	929	100

조사대상자 중 비흡연자가 557명(60.0%), 흡연자가 372명(40.0%)으로 비흡연자가 다소 많았다.

표 5. 흡연량

흡연량	빈도(명)	백분율(%)
0	558	60.1
반갑미만	55	5.9
반갑-1갑	207	22.3
1갑-1갑반	94	10.1
1갑반 이상	15	1.6
합계	929	100

조사대상자 중 흡연자의 1일 평균 흡연량을 살펴보면, 하루 11-20개비 즉, 반갑에서 1갑 정도가 207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21-30개비 94명(25.7%), 하루 10개비 미만 55명(14.2%), 하루 31개비 이상 15명(3.7%) 순으로 나타났다.

2. 종속 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부정적 행동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결론과 징계로 설정하였고, 다시 결론은 결론 의사, 결론실행, 거짓결근 그리고 징계는 징계경험, 징계종류로 구성하였다.

표 6. 결론 의사

결근의사	빈도(명)	백분율(%)
없다	458	49.3
있다	471	50.7
합계	929	100

조사대상자 중 종종 결근하고 싶은 적인 있었다는 응답자는 471명(50.7%), 결근하고 싶은 적이 없었다는 응

답자는 458명(49.3%)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결론 실행

결근실행	빈도(명)	백분율(%)
없다	847	91.2
있다	82	8.8
합계	929	100

조사대상자 중 다급하지 않은 사유나 약간 아픈 것을 이유로 실제로 결근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82명(8.8%), 실제로 결근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847명(91.2%)이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사소한 사유로 결근을 실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거짓 결근

거짓결근	빈도(명)	백분율(%)
없다	605	65.1
있다	324	34.9
합계	929	100

조사대상자 중 거짓말을 하고 결근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324명(34.9%), 결근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605명(65.1%)이었다. 따라서 다수의 응답자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결근을 하지는 않았으나 34.9%에 이르는 적지 않는 수의 응답자는 사유야 각자 있었겠지만 거짓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결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징계 경험

징계경험	빈도(명)	백분율(%)
없다	891	95.9
있다	38	4.1
합계	929	100

조사대상자 중 최근 1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38명(4.1%),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891명(95.9%)으로 나타났다.

표 10. 징계 종류

징계종류	빈도(명)	백분율(%)
0	866	93.2
정직	7	0.8
감봉	9	1.0
견책	15	1.6
기타	32	3.4
합계	929	100

징계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징계 종류는 기타 32명, 견책 15명, 감봉 9명, 정직 7명 순으로 나타났다.

3. 교차 분석

독립변수인 음주 및 흡연 행위 그리고 종속변수인 결론 및 징계 정도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그 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만 제시하였다.

표 11. 결론의사*음주빈도

결론의사	음주빈도					
	0	월1-2회	월3-4회	주2-3회	주4-5회	거의 매일
없다	65 53.7%	93 46.7%	156 47.9%	120 54.3%	21 50.0%	3 15.0%
있다	56 46.3%	106 53.3%	170 52.1%	101 45.7%	21 50.0%	17 85.0%

$\chi^2=13.374$, $df=5$, $p<0.05$

결론의사와 음주빈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거의 매일 음주를 할 정도의 고위험 음주자에게서는 결론의사가 있는 경우가 85.0%로 없는 경우 15.0%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12. 결론실행*음주량

결론실행	음주량				
	0	1잔-반병	반병-1병	1병-2병	2병 초과
없다	105 86.1%	136 91.9%	259 93.8%	294 91.9%	53 84.1%
있다	17 13.9%	12 8.1%	17 6.2%	26 8.1%	10 15.9%

$\chi^2=10.573$, $df=4$, $p<0.05$

결론실행과 음주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회 음주량이 소주 2병을 초과하는 고위험 음주자들의 결론실행 경험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거짓결근*음주빈도

거짓결근	음주빈도					
	0	월1-2회	월3-4회	주2-3회	주4-5회	거의 매일
없다	75 62.0%	125 62.8%	227 69.6%	143 64.7%	28 66.7%	7 35.0%
있다	46 38.0%	74 37.2%	99 30.4%	78 35.3%	14 33.3%	13 65.0%

$\chi^2=11.961$, $df=5$, $p<0.05$

거짓결근 경험과 음주빈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거의 매일 음주를 할 정도의 고위험 음주자에게서 거짓결근 경험이 있는 경우가 65.0%로 없는 경우 35.0%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14. 징계경험*음주빈도

징계경험	음주빈도					
	0	월1-2회	월3-4회	주2-3회	주4-5회	거의 매일
없다	118 97.5%	197 99.0%	312 95.7%	208 94.1%	37 88.1%	19 95.0%
있다	3 2.5%	2 1.0%	14 4.3%	13 5.9%	5 11.9%	1 5.0%

$\chi^2=14.052$, $df=5$, $p<0.05$

징계경험과 음주빈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음주빈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징계경험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징계경험*흡연유무

징계경험	흡연유무	
	비흡연	흡연
없다	542 97.3%	349 93.8%
있다	15 2.7%	23 6.2%

$\chi^2=6.924$, $df=1$, $p<0.01$

징계경험과 흡연유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흡연집단이 비흡연집단보다 징계를 받은 경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징계경험*흡연량

징계경험	흡연량			
	0	반갑미만	반갑-1갑반	1갑반 이상
없다	544 97.5%	54 98.2%	280 93.1%	13 86.7%
있다	14 2.5%	1 1.8%	21 6.9%	2 13.3%

$\chi^2=22.132$, $df=4$, $p<0.01$

징계경험과 흡연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흡연량이 많아질수록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17. 징계종류*음주빈도

징계 종류	음주빈도					
	0	월1-2회	월3-4회	주2-3회	주4-5회	거의 매일
0	116 95.9%	194 97.5%	307 94.2%	195 88.2%	35 83.3%	19 95.0%
정직	0 0.0%	0 0.0%	1 0.3%	5 2.3%	1 2.4%	0 0.0%
감봉	0 0.0%	0 0.0%	3 0.9%	6 2.7%	0 0.0%	0 0.0%
견책	1 0.8%	2 1.0%	3 0.9%	5 2.3%	4 9.5%	0 0.0%
기타	4 3.3%	3 1.5%	12 3.7%	10 4.5%	2 4.8%	1 5.0%

x 2=49.186, df=20, p<0.01

징계종류와 음주빈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음주빈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종류의 징계경험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징계종류*흡연유무

징계 종류	흡연유무	
	비흡연	흡연
0	529 95.0%	337 90.6%
정직	1 0.2%	6 1.6%
감봉	4 0.7%	5 1.3%
견책	7 1.3%	8 2.2%
기타	16 2.9%	16 4.3%
전체	557 100.0%	372 100.0%

x 2=9.868, df=4, p<0.05

징계종류와 흡연유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흡연집단이 비흡연집단보다 모든 종류의 징계경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9. 징계종류*흡연량

징계 종류	흡연량				
	0	반갑미만	반갑-1갑	1갑-1갑반	1갑반 이상
0	531 95.2%	53 96.4%	184 88.9%	86 91.5%	12 80.0%
정직	1 0.2%	0 0.0%	3 1.4%	2 2.1%	1 6.7%
감봉	4 0.7%	1 1.8%	2 1.0%	2 2.1%	0 0.0%
견책	7 1.3%	0 0.0%	5 2.4%	2 2.1%	1 6.7%
기타	15 2.7%	1 1.8%	13 6.3%	2 2.1%	1 6.7%
전체	558 100.0%	55 100.0%	207 100.0%	94 100.0%	15 100.0%

x 2=28.528, df=16, p<0.05

징계종류와 흡연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흡연량이 많아질수록 모든 종류의 징계경험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및 흡연의 정도와 부정적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인 음주는 음주경험, 음주빈도, 음주량 그리고 흡연은 흡연유무, 흡연량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부정적 행동은 결근과 징계로 설정하였고, 다시 결근은 결근의사, 결근실행, 거짓결근 그리고 징계는 징계경험, 징계종류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들은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변수들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결근의사와 음주빈도에서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할 정도의 고위험 음주자에게서는 결근의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결근실행과 음주량에서는 1회 음주량이 소주 2병을 초과하는 고위험 음주자들의 결근실행 경험이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거짓결근 경험과 음주빈도에서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할 정도의 고위험 음주자에게서 거짓결근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징계경험과 음주빈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음주빈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징계경험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징계경험과 흡연유무에서는 흡연집단이 비흡연집단보다 징계를 받은 경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징계경험과 흡연량에서는 흡연량이 많아질수록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징계종류와 음주빈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음주빈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종류의 징계경험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여덟째, 징계종류와 흡연유무에서는 흡연집단이 비흡연집단보다 모든 종류의 징계경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홉째, 징계종류와 흡연량에서는 흡연량이 많아질수록 모든 종류의 징계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고위험 음주자와 흡연자들의 부정적 행동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 및 조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와 흡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동아일보, 2001년 12월 12일자.
 [2] 보건복지부, 2014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5.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7년 1월 5일자.
 [4] YTN, 2007년 5월 21일자.
 [5] 대한주류공업협회, 알코올상식백과, 1998.
 [6] 천주의 성요한 알코올 상담 치료센터, *회복에 이르는 길*, 하나의학사, 1993.
 [7] 대한주류공업협회, 알코올상식백과, 1998.
 [8] 신성원,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제

10권, 제2호, pp.117-141, 2008.
 [9] 신성원,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2호, pp.117-141, 2008.
 [10] 진기남, 한동우, *직장인의 음주행태와 삶의 질*, 집문당, 1998.
 [11] 이민규,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제12권, 제1호, pp.166-167, 1993.
 [12] 서울경제, 2008년 4월 1일자.
 [13] YTN, 2007년 5월 21일자.
 [14] 헤럴드경제, 2005년 3월 17일자.
 [15]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7년 4월 2일자.
 [16] 윤숙희, 배정미, 이소우, 안경애, 김세은,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음주 및 흡연 형태”, 보건과 사회과학, 제19집, p.34, 2006.
 [17] 안동성, 이영호, 정영조, “남성 직장인에서 흡연과 우울, 스트레스 및 다른 물질사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33권, 제6호, p.1410, 1994.

저 자 소 개

신 성 원(Sung-Won Sin) 증신희원



- 2001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사)
 - 2003년 8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경찰학, 범죄학, 청소년비행